SK, 에너지 마케팅 대폭강화

황두열 부회장 직할 사업군 신설 … 주총은 12% 배당 결정

SK가 경영진 교체에 이어 3월7일 에너지 마케팅 사업군 신설을 핵심으로 하는 조직개편을 단행함으로써 황두열 부회장의 역할이 강화되게 됐다.

SK는 주력사업인 석유사업, 전력 및 LNG(액화천연가스) 등의 에너지 사업부문과 OK캐쉬백, 엔트랙사업 등 최종 소비자들을 상대로 한 사업들을 한데 묶은 에너지마케팅 사업군을 신설하고 이를 황두열 부회장이 직접 관장토록 했다고 밝혔다.

에너지마케팅 사업군에는 그동안 각 사업별로 분산돼 별도의 조직으로 운영돼 오던 물류본부, 데이터베이스마케팅(DBM) 지원본부 등의 마케팅 지원기능이 통합돼 SK가 마케팅 회사로 거듭나기 위한 중심역할을 하게 된다.

그 동안 엔크린보너스카드, 011리더스카드, OK캐쉬백카드 회원 등 1600만명이 넘는 국내 최대의 고객 데이터베이스를 바탕으로 온·오프라인을 통합하는 네트워크를 구축해온 SK가 2002년부터는 마케팅활동에 본격적으로 활용하겠다는 의지가 조직개편에 담겨 있는 것으로 해석되고 있다.

SK는 이와 함께 인력, 홍보, 재무, 종합기획 조직을 경영지원부문으로 통합해 결재라인을 간소화했으며 SK 울산컴플렉스 생산을 총괄하는 생산부문, 화학사업부문, 기술사업개발부문 등은 현행대로 유지된다.

SK는 3월8일 파이낸스빌딩에서 정기주주총회를 열고 12%의 배당을 결정했다.

황두열 부회장은 주주총회에서 SK텔레콤 지분 7.2%를 2002년 안에 가급적 높은 값을 받고 팔도록 노력하겠으며 매각대금으로 부채를 해소, 부채비율을 100%까지 낮추도록 하겠다고 보고했다.

SK는 또 주주총회 결의를 통해 황두열 부회장을 비롯한 65명의 임원에게 총 90만주에 해당하는 주식 매수선택권을 부여했으며 정관의 사업목적에 천연가스터미널, 환경사업, 통신판매업, 전자적 지불수단의 발행 및 예치 등에 관련된 금융업 영위 등을 추가했다.

아울러 임기가 만료된 최태원 회장을 등기이사로 재선임하고 경영지원본부장인 유정준 전무를 신규 선임했다.

유정준 SK 전무는 1962년 12월 생으로 2002년 40세를 맞는데 SK그룹 주력 계열사인 SK에서 전무 승진과 함께 등기이사로 선임돼 김창근 구조본부장 겸 SK 사장 등과 함께 그룹 운영의 핵심축을 맡을 것으로 보인다.

유정준 전무는 경기고와 고려대 경영학과를 나와 미국 일리노이대학에서 회계학 석사학위를 딴 뒤 딜로이트 & 터치 뉴욕사무소 선임회계사를 거쳐 맥킨지 한국사무소에서 근무할 때 LG그룹 경영컨설팅 업무를 하다 구자경 당시 LG 회장에게 발탁돼 1995년 LG건설에 입사한 뒤 1997년에는 35세의 나이로 임원반열에 올라 화제가 됐던 인물이다. 이후 1998년 SK 종합기획실장 보좌역 상무로 자리를 옮긴 뒤 경영지원부문장 등을 맡아왔다.

유정준 전무는 특히 최 회장과는 고려대 선후배 사이이고 연배도 비슷해 전폭적인 신임을 얻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SK 내부에서는 차세대 리더로 꼽히는 유 전무가 조기에 부상함에 따라 경영진 세대교체에 가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고 있다.

SK는 주주총회에서 2001년 매출 14조1149억원, 경상이익 1103억원, 당기순이익 912억원을 달성했다고 보고했다.

한편, SKC는 3월8일 서울 강남구 역삼동 본사 강당에서 정기 주주총회를 개최하고 2001년에 이어 무배당을 결정했다.

SKC는 주주총회에서 2001년 매출 6755억원, 영업이익 602억원을 올렸으나 SK증권, SK글로벌에 대한 지분법 평가손실이 발생해 당기순손실 1122억원을 기록했다고 밝혔다.

SKC는 7명의 사내 및 사외 등기이사 중 임기 만료된 최동일 사장을 등기이사로 재선임하고 박복수 상무를 신규 선임했다.

또 사업목적에 정밀화학제품의 수입, 저장, 수송, 판매와 이를 위한 기술용역 업무를 추가하고 감사위원회를 설치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정관 변경안을 승인했다.

<Chemical Daily News 2002/03/11>